

자연을 빛다

미니멀 보태니컬 아트 갤러리



갤러리 노트

거친 질감의 콘크리트와 나무 껍질, 그리고 생명력을 품은 다육 식물의 만남.
투박한 인공의 소재들이 정교한 자연의 선과 어우러져,
우리의 일상 공간에 고요한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땅의 질감

Textures of the Earth



시간이 멈춘 듯한 견고함

거친 다공성 콘크리트 화분과 다육 식물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대비.



단단함 속의 부드러움

푹신한 쿠션을 닮은 오브제 위로 만개한 에케베리아 군락.

고요한 정원

오랜 시간 물길에 다듬어진 강돌을 닮은 형태가 선사하는 시각적 평온함.



형태의 변주

Variations in Form

건축적 선과 색의 대조

기하학적 면 분할과 과감한 색감으로
재해석된 모던 베이스.



작은 숲의 이야기

Tales of a Little Forest



책상 위에서 만나는 동화

투명한 유리병과 하얀 나뭇가지, 코르크가 섬세하게 엮어낸 작은 디오라마.

수직의 숲

거친 나무껍질과 솔방울을 품고
벽면을 타고 오르는 생명력.



공중 정원

Hanging Gardens



허공에 머무는 색채

공간의 무게를 덜어내는 노란 사각과 푸른 원뿔의 유희.



환영의 굴레

싱그러운 색채와 작은 종이 어우러져 공간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마침표.

일상 속 작은 자연이 주는 위로

The comfort of a little nature in daily life.